

다문화사회의 자생적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신재현*, 김상운**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사회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준과 노동력 부족문제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우리나라로의 유입 외국인의 증가, 남·여 성비 문제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어, 우리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다문화사회 구성원들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치안관련 문제는 현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급격한 유입은 기존의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문화적 충돌의 발생, 경찰 및 정부의 통제부족 등으로 인하여 테러에 대하여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리즘의 여러 유형 중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자생적 테러리즘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테러리즘 유형이라고 한다. 자생적 테러리즘은 최근 발생하는 뉴테러리즘의 한 분야로서, 기존의 테러리즘과 달리 공격주체에 대한 추적의 곤란, 대규모 피해, 조직 무력화의 어려움, 테러 대처시간의 부족,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테러에 대한 두려움 확산용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자생적 테러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급증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 정확한 기초통계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테러를 직접적으로 접해본 경험이 없어 전문성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자생적 테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다문화사회, 테러리즘, 자생적 테러리즘, 외사경찰활동

1. 서론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부족한 노동인력의 충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 결과 국가경제 및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으나, 외국출신자와의 문화적 갈등의 발생을 비롯한 자국민들과의 차별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적 특성과 함께 다

* 동국대학교 강사, 주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른 외국과 달리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주로 동남아시아 및 중국 등과 같은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어, 노동시장과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다문화사회에 비해 다양한 인종과의 접촉 및 공존경험이 적고, 혈통을 중시하는 단일 민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문화적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2005년 발생한 프랑스의 방리유¹⁾ 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사회통합으로 승화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소요와 자국민에 대한 테러 문제로 변형되어 엄청난 희생과 사회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이가라·양창렬, 2007; 김순석, 2010: 2).

특히,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출신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된 외국출신자들과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출신자들은 갈등의 해소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자생적 테러리즘 걱정할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생적 테러리즘이란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달리, 외부유입에 의한 테러가 아닌 국내 상황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의 유형으로서, 외국출신자들의 국내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을 표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생적 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테러발생 및 테러리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자생적 테러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차 갖추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테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 경찰, 군(軍)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시간을 두고 장기간 대처해야 하는 문화적 갈등 및 사회적 갈등에 의한 자생적 테러리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 발전해감에 따라 외부출신 다문화구성원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갈등으로 인한 자생적 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위하여,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예방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2005년 프랑스 방리유 사태는 오랫동안 차별받으며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온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요를 일으킨 사건이다. 프랑스는 이 때문에 1955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고, 이는 프랑스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았다. 작년 여름 노르웨이의 브레이비크 사건은 경제적 불안이 이민자들로부터 비롯됐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집권 노동당의 청소년 정치캠프를 습격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유럽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주간경향, 2012. 5. 8일자,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tid=201205021132221&pt=nv>).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통계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갈등발생 실태와 가능성을 통해 자생적 테러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의 의의

1) 다문화사회의 정의

다문화사회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가 유입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문화가 합쳐져서 단일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재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는 multi-cultural, inter-cultural, cross-cultural로 혼합하여 번역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그 개념의 이해와 논의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다문화란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서 비롯되는 각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정하성 외, 2007; 김순석, 2010: 68).

다문화사회는 사회구조와 제도가 다문화주의를 반영하고 구체화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임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조규범, 2010; 김태복·신상민, 2011: 249).

그래서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몇 개의 인접한 소수집단의 단위문화가 주류사회의 단위문화를 배경으로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공존하면서 각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 내는 이른바 ‘샐러드 그릇(salad bowl)’을 의미한다고 하였다(Kymlicka & Wayne, 2000; 최선우, 2010: 41).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 노동자와 이질 문화,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형태가 한 가지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인 유형이다(김명대, 2011: 50)

우리나라의 경우는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이주 노동자와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유사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영국·프랑스·독일과 같은 국가의 사례와 달리 20세기 후반이후, 경제인 원인과 결혼 이주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기존의 단일한 문화를 가진 한(韓)민족에 다른 이질문화가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시작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민국가에 다문화사회가 일찍이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꽤 늦게 시작되었다. 88올림픽 이후 경제력의 급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및 부족한 노동인구 충원, 농촌의 노총각문제 해결 등의 원인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급증하게 되었다.

한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이 급증된 199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일민족 국가를 고수했던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의 세계적인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었다. 정부가 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혈통주의를 버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한국국민으로 인정하는 국적주의를 택한 것은 다문화사회를 인정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김순석, 2010: 107).

한국으로 유입된 수많은 외국인들이 형성한 문화적 특성 내지 다양성이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사회는 근본적으로 문화적 갈등 구조와 공존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가 심화될수록 갈등을 완화하고 공존의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2)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성

우리나라 다문화사회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다문화사회는 크게 네 가지정도의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다문화사회의 폭발적 성장

우리나라 다문화사회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거주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1990년대 초반으로 상정한다면, 2010년도 다문화 인구가 약 12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매년 6만 명 이상의 다문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서 한반도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왜래 인구유입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양현규 외, 2010: 130-131).

실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집계된 다문화 형성 외국인의 변화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891,341명이었던 다문화 형성 외국인의 수가 2011년에는 1,265,006명으로 42%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모든 지역에서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행객을 제외한 한국거주 외국출신자들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경기도 안산, 시흥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되어 우리나라사람보다는 외국인의 활동이 많은 지역이 되고 있다.

<표 1> 2008~2011 외국출신자의 지역별 변화현황

(단위 : 명)

행정구역별	2008	2009	2010	2011
전국	891,341	1,106,884	1,139,283	1,265,006
서울특별시	260,019	334,910	336,221	366,279
부산광역시	33,192	40,913	41,365	44,726
대구광역시	22,822	25,424	26,002	28,153
인천광역시	49,253	61,522	63,575	69,350
광주광역시	13,077	15,659	16,632	18,824
대전광역시	14,682	18,834	19,699	21,360
울산광역시	14,667	18,914	19,354	21,400
경기도	277,991	323,964	337,821	380,606
강원도	15,236	18,908	19,041	21,940
충청북도	22,669	28,311	30,138	34,083
충청남도	36,591	45,920	48,874	57,869
전라북도	18,423	27,223	28,450	31,515
전라남도	20,551	30,309	31,305	35,077
경상북도	36,685	44,831	46,658	50,808
경상남도	50,431	64,298	66,800	74,517
제주도	5,052	6,944	7,348	8,499

※ 출처: 통계청.

(2) 동아시아 및 동남아 출신자들 중심의 다문화사회 형성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출신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1990년대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유입과 농촌지역으로 결혼이민 등을 통해 중국·베트남·필리핀·몽골 등의 지역 거주자들이 급증하게 하게 되었다.

2010년 조사된 국내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동포가 전체의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16%를 차지하여, 중국문화권에 의한 국내체류외국인은 전체의 51%를 차지하여,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 국내체류 외국인이 10%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이 7%, 필리핀 4%, 일본·인도네시아가 각각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은 주로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2> 2010년 국내체류 외국인

	외국인총계(명)	전체 비율(%)
중국	93,272	16
중국(조선족)	206,049	35
대만	11,111	2
미국	41,766	7
일본	17,073	3
필리핀	24,782	4
인도네시아	17,371	3
태국	15,633	2
베트남	59,339	10
방글라데시	4,593	1
몽골	13,954	2
우즈베키스탄	11,204	2
러시아	5,230	1
파키스탄	4,986	1
기타	63,169	11

※ 출처: 통계청.

(3) 저소득층의 다문화인구

세 번째,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경제적인 특징은 새롭게 유입된 다문화사회의 이방인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권의 인식성장, 노동인권증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계층에서 3D 업종을 기피하게 되었었으며,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로 인해, 저임금 단순노동 인력이 고임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국내에 저임금 3D업종의 노동력부족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국내유입과 함께, 1990년 후반부터 실시된 ‘농촌지역총각강가보내기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인 중국·필리핀·태국·몽골 출신 등의 결혼이주를 통해 농촌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농촌지역 역시 저소득층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다문화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다문화가정은 주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기초생활 비율은 4.9%로 일반 국민 수급자 비율 3.1%에 비해 1.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명대, 2010: 57).

그리고 2006년 조사된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별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가진 결혼이민자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06년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별 월평균 소득수준

(단위: %)

구분	50만원 미만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600만원	601~700만원	701만원 이상	모르겠다	계(수)
전체	5.1	16.2	38.4	18.7	5.7	1.8	0.9	0.5	0.7	12.0	100.0 (126,312)
초등학교 이하	10.1	22.1	35.2	11.5	2.2	0.7	0.4	0.1	0.2	17.6	100.0 (10,132)
중학교	5.7	19.2	40.1	16.7	3.4	0.8	0.3	0.2	0.2	13.3	100.0 (33,984)
고등학교	4.4	16.1	41.5	20.0	5.3	1.3	0.6	0.2	0.5	10.0	100.0 (52,907)
대학 이상	4.0	10.9	31.5	21.2	10.4	4.5	2.4	1.3	2.1	11.7	100.0 (28,193)

※ 출처: 여성가족부.

(4) 일반국민들의 낮은 다문화 인식 수준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낮다. 이는 여전히 다문화에 대해 폐쇄적인 특성과 함께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가출신들의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영향을 주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낮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실시된 한국·중국·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을 통해 다문화사회 인식정도에 대한 비교한 결과 중국·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다문화 사회 인식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0년 한·중·일 청소년의 다문화사회 인식 비교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매우 그렇다	10.6	9.1	25.1	24.3	11.6	9.3
다소 그렇다	60.4	66.8	57.8	64.5	50.4	54.6
별로 그렇지 않다	23.5	20.6	10.7	8.3	23.9	26.8
전혀 그렇지 않다	5.2	3.2	4.2	1.4	10	4
무응답	0.3	0.3	2.2	1.6	4.1	5.3

※ 출처: 통계청.

3)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갈등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많은 외부 세력의 침략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았다. 그로 인해, 외부 세력에 대해서 좋지 않은 관점으로 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문화사회 구성원과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중·일 청소년의 다문화사회 인식 비교 결과,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급증한 외국출신 노동자들의 증가는 시민들과의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오원춘 사건 등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의한 심각한 범죄의 발생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제노포비아: Xenophobia)을 발생시키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켜, 결국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기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안산 단원지구와 같이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간에는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위협성을 가지고 있어,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찰조차도 통제하기 어려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외국인 범죄자들의 증가와 우리나라 고유의 외부세력에 대한 폐쇄성이 합쳐지게 되어 외국출신 다문화사회 구성원과의 충돌을 야기해, 이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잦아지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테러리즘의 의의

1) 테러리즘의 정의

테러리즘의 어원은 ‘조직적인 폭력의 사용’이란 말로 프랑스 혁명기간의 공포정치에서 유래된 것으로 1789년 프랑스에서 발간된 “Dictionnaire of the Academie Francaise”에서 테러리즘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명확하게 내려지고 있지 않다. 이는 연구하는 학자나 관련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테러리즘의 폭력사용에 대한 상대적 인식이며 이것이 테러리즘 정의 도출 상의 어려움의 근원이 된다.

가장 흔히 인용되는 테러의 정의는 Thornton에 의한 것으로 ‘폭력의 사용이나 그 위협을 수반하는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의도의 상징적인 행위’를 테러라고 하였다 (Thornton, 1964; 신의기, 2002: 29).

CIA에서는 “테러리즘은 개인 혹은 단체가 기존의 정부에 대항하거나 혹은 대항하기 위해서든지 간에 직접적인 희생자들보다 더욱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심리적 충격 혹은 위협을 가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류원호, 2010: 23-24).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찰청이나 국정원에서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에서는 테러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공통점을 살펴보면 목적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을 추구하고 주체는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되어지고 목적추구를 위해 국내·외를 불문한 장소에서 벌어진다. 또한 상징적인 인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 또는 국가중요시설과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살인, 납치, 협박, 강요, 시설파괴 등 비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사용에 대한 협박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포나 불안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국제적으로 정립된 테러의 개념은 없으나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각국의 테러 관련법 또는 협약 등이 정의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되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요소들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어 개인적·경제적 동기에 의한 마약·조직범죄 등과 구별이 되고 비전투요원의 신체·생명·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투요원을 공격하는 전쟁행위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또한 미리 계획되고 지속성을 가진 사건으로서 시위 중 발생하는 우발적인 폭력행위와는 다르고 공포심을 수반한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른다는 점이 공통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은 대체로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정의를 준용하여 “테러란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라고 정의한다.

2) 자생적 테러리즘의 정의와 원인

테러리즘의 여러 유형 중 자생적 테러리즘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한 유형으로서, 영국 런던에서 2005년 7월에 발생한 지하철 폭탄테러 사례에서와 같이 테러의 주체가 다문화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자국민이며, 특히 테러조직의 형태와 관련해서 과거 수직형 체제의 조직을 탈피하여 자생적 조직으로 성장한 경우 많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교육 및 복지혜택을 받고 자국 구성원으로서의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에 의한 테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생테러리즘은 그 발견이 어려우며 자국 내 구성원에 의한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그 충격과 공포도 여타의 테러리즘보다는 크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김순석, 2010: 6).

이러한 자생적 테러리즘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론, 갈등이론, 감염이론 등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론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나 가치기대와 가치 능력간의 차이 등에 대한 인식을 뜻하며 박탈감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일 수도 있다(최진태, 2006; 신제철, 2009: 18-19).

다시 말해, 상대적 박탈감 이론은 사회가 제공하는 욕구가 만족도를 훨씬 초과할 경우 사회, 심리적으로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것은 곧 폭력적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갈등이론은 문화적 갈등이나 집단 간의 갈등에 기초하고 있다(Akers & Sellers, 2004; 민수홍 외, 2005: 320). 즉 행동규범은 서로 다른 집단에 의해서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이한 집단의 행동규범 간에 갈등과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문화갈등이라고 하였다. 이를 기초로 쉐린은 일차적 문화갈등과 이차적 문화갈등이란 개념으로 자신의 갈등론적 범죄관을 피력하였다(이윤호, 2007; 신제철, 2009: 22).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서로 다른 계층들에서 적용되는 행위규범들이 서로 중복되고 상호 충돌하는 현상이 점차 늘게 되며, 여기서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일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한다. 또한 식민지화의 경우와 같이 특정문화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거나 이민처럼 특정 문화집단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때 일차적 문화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급격하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투영하여, 자생적 테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감염이론은 이미 발생한 테러행위에 대한 TV 등 매스미디어의 무절제한 보도 또는 특종 위주의 보도로 인해 이와 유사한 모방테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²⁾

감염이론에서는 일부 상업적 언론이 테러리스트의 잔학행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언론사는 이익을 취하고 테러단체는 테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미디어기업이 본의 아니게 테러단체를 방조하는 역할을 해 제2, 제3의 테러가 발생하는 악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감염이론에서 발전하여 테러리즘과 매스미디어는 상호 간에 공생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공생관계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활동이념과 주의·주장을 전파하는데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매스미디어는 판매부수나 시청률, 인기도 향상을 위해 테러리즘 사건을 확대·왜곡하여 무분별하게 보도함으로써 테러리스트와 언론기관이 결과적으로 공생 관계에 있다는 이론이다(신제철, 2009: 27-28).

이러한 감염이론이 테러리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감염원이 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매스미디어가 가지는 효과로 인하여, 자생적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테러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화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파병이 한국에 대한 아랍권의 적대감표출로 이어지면서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속하게 형성되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요인으로 지목된 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의한 자생적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경찰청 테러예방교실(<http://cta.police.go.kr/know/word/read.jsp?reqPageNo=1&rowNum=0&rowCount=4 9 &searchHospitalFK=0&stype=&sva>).

3) 전통적 테러리즘 특성과 뉴테러리즘 특성의 비교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테러리즘의 특성을 크게 전통적인 형태의 테러리즘 특성과 새로운 형태인 뉴테러리즘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뉴테러리즘이 기존의 테러리즘과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테러리즘과 달리, 최근의 사회경향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테러리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테러리즘의 특성을 논할 때 차이를 두고 설명한다.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전통적인 형태의 테러리즘에서는 테러요구조건 및 공격주체의 불명으로 추적이 곤란하다. 과거의 테러는 테러집단이 독립국가건설, 제국주의체제 타도 등 구체적인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테러를 자행한 뒤 통상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면서 요구조건을 몇몇이 밝혔다.

그러나 뉴테러리즘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서방에 대한 반감 및 신 식민주의 반대 등 추상적인 이유를 내세워 공격이 이루어진다. 범행 후 정체도 밝히지 않고 구체적 요구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얼굴 없는 테러’로 나타나서 색출과 검거가 매우 어렵다(신제철, 2009: 17).

둘째,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전통적인 형태의 테러리즘은 특정한 목표가 있어 제한적인 형태의 테러로 인해 제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경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자체가 목적처럼 되었다(주재진, 2004: 123-124). 과거의 테러처럼 상징적인 요인의 암살이나 납치 상징적인 건물의 점거같이 제한된 대상이나 공간보다는 9·11 테러처럼 무차별적 인명살상으로 사상자 수가 많을만한 목표물을 테러대상으로 노리게 되었다.

세 번째, 그물망 조직으로 무력화가 곤란하다. 과거의 전통적인 테러조직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지배하는 수직체제의 집단이었지만 최근의 테러조직들은 네트워크 구조를 지닌 보다 복합적인 조직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조직 방식은 지도부의 지배력이 덜 미치므로 조금 더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리란 예측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조직은 수뇌부나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한 위장잡입이나 침투 같은 방식의 전략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테러조직 검거가 더욱 어려워진다(유인일, 2011: 25).

네 번째, 테러의 긴박성으로 대처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테러리즘이 사용하던 납치나 건물 점거 등은 협상팀이나 대테러특공대 투입 등으로 현장대처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나 뉴테러리즘은 미국의 9·11 테러사건처럼 여객기를 납치, 빌딩에 충돌시키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여객기 납치에서 빌딩에 충돌하기까지 40-5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되는 것과 같이 긴박하게 진행되어 대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신제철, 2009: 17).

다섯 번째, 공격을 자행하는 테러리스트의 공격방법이 대량살상을 위한 무기체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즉 뉴테러리즘은 테러리즘과 달리 엄청난 양의 폭탄을 몸에 두르거나 차량에 탑재한 후 순교하는 형식으로 자살폭탄을 감행하거나, 핵 및 생화학적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뉴테러리즘에는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극적으로 살상함으로써 보다 쉽게 그들의 성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대목이며, 이러한 점에서 북핵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장기봉, 2008: 53).

여섯 번째, 언론매체의 발달로 공포의 확산이 용이하다. 즉 현대는 개방화 시대로 언론에 대한 상황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구촌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전 세계에 신속하게 전파된다(유인일, 2011: 26).

이러한 사건의 신속한 전파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현대의 테러리스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9·11 테러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실시간 보도를 통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일곱 번째, 중산층 및 인텔리 출신 인원들의 참여로 테러가 지능화되고 있다. 종전의 테러는 대부분이 사회의 소외계층 출신으로 기초교육조차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환경을 지니고 학력도 높은 인원들이 테러리스트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타국에서 이민으로 정착한 가정의 2세들도 테러리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김현진, 2004: 20).

III. 자생적 테러리즘 환경과 테러리즘 실태

1. 외국인출신자의 범죄로 인한 영향

1) 외국인 출신자의 범죄현황

다문화사회를 맞아 국내 거주 외국인인 2011년 기준 140만 명에 달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는 세계화를 통해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는 다른 선진국의 다문화 사회와 달리 비교적 급진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배타성으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 문제, 무질서 야기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사회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급박하게 이루어진 서로 다른 집단의 융화는 집단 간에 갈등 양상이 생길 수 있으며 범죄와 무질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문화 속에는 거대 지배문화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수집단 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형성되며 이것이 범죄와 무질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전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으로는 불법체류자를 들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그 존재만으로도 각종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치안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의 불안정한 지위는 범죄와의 연관성을 높이는 연결고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불법적인 지위로 인하여 각종 범죄나 일탈에 가담하기 쉬우며 동시에 그러한 피해를 입기도 쉬운 양면적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권혜림, 2010: 15).

<표 5> 2007~2011 외국인 범죄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추정 불법체류자(명)	223,464	200,489	177,955	168,515	167,780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그리고 체류외국인 및 결혼 이주자의 증가는 외국인 범죄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외국인수와 그 범죄에는 암수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수 대비 외국인의 범죄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연도별 외국인 출입국현황 및 연도별 외국인 불법체류현황,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등을 비교하여 총 체류자 및 입국자의 증가는 외국인범죄의 증감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으며 비록 적은 외국인 입국자 수의 증가만으로도 범죄의 발생은 더욱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김주덕, 2008; 김순석, 2010: 116).

<표 6>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4,524	20,623	23,344	22,543	26,915
전년대비증감(%)	14.8	42.0	11.6	-3.4	19.4
살인	54	85	103	83	103
강도	118	133	260	221	157
강간	176	178	198	255	308
절도	1,213	1,343	2,001	1,741	1,766
폭력	3,369	4,940	5,322	5,885	7,830

지능범	5,685	7,472	4,792	4,487	3,549
마약류	231	694	778	720	243
기타	3,678	5,778	9,890	9,151	12,959

※ 출처: 경찰청 정보관리시스템, e-나라지표.

외국인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범죄는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2011년 외국인 피의자는 26,915명으로 2010년에 비해 19.4%가 증가하였다. 최종별로는 폭력이 7,830명, 지능범이 3,549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절도로 1,766명으로 나타났다.

2) 외국인출신자 범죄증가에 따른 영향

외국인 출신자들의 범죄는 외국 출신자들의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안산과 시흥지역에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는 2007년 408건, 2009년 790건, 2011년 86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외국인 범죄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암수적인 특징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범죄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흥 주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외국인들 때문에 무서워 밤에는 집 밖으로 못 나간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³⁾

특히, 외국인에 의한 심각한 범죄사례의 증가는 결국 외국출신자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연루되니 부정적인 인식은 거듭 증폭된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완벽한 소외계층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⁴⁾

결국, 외국인출신 범죄증가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함께 융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생적 테러리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건설경제, 2011. 11. 3. 뉴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111021142325480977>.

4) 안산시와 경찰서는 치안강화를 위해 원곡동 일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순찰하는 조직을 만들었지만 역부족이다. 경찰관은 사비를 들여 '방검조끼'를 구입했다. 흉기 공격을 막기 위해서다. 순찰대에서는 지난 4일 벌어진 칼부림 사건도 전해졌다. 중국인 한 명이 정육점에서 쓰이는 네모난 칼을 가지고 나와 다른 중국인의 팔과 종아리에 휘둘렀다. 순찰대원 김철균(40)씨는 "주말이면 우리 옷에도 피 묻히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2. 3. 28. 뉴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732943&cloc=olink|article|default).

2. 테러리즘 현황

1) 세계 테러리즘의 실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사건의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로 테러발생건수를 보면 3000건에 가깝거나 그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은 6월을 기준으로 1960건으로 반년 만에 2000건에 가깝게 테러가 발생했다.

<표 7> 연도별 테러사건 추이

(단위: 건)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건수	3,215	3,370	2,946	3,347	1,960	14,838

※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http://www.tiic.go.kr>).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5년간 일어나고 있는 테러사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그 중 테러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파가 7,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무장공격으로 5,819건이었다. 나머지는 납치가 680건 암살이 226건 방화가 105건으로 순으로 많았다. 다른 유형보다 폭파와 무장공격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유형별 테러사건

(단위: 건)

납치	방화	암살	무장공격	폭파	기타	합계
680	105	226	5,819	7,531	249	14,610

※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http://www.tiic.go.kr>).

테러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군이나 경찰 관련시설이 6,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민간인이나 시설물로 4,298건이었다. 외국인과 시설에 대한 공격도 1,017건으로 많았고 다중이용시설이 900건, 국가중요시설이 80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요인물을 공격한 사건은 799건이었고 교통수단을 공격한 것은 342건이었다. 테러공격의 대상이 되는 목표물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시설물이나 인물, 또는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민간인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곳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테러대상별 테러사건

(단위: 건)

외국인·시설	국가중요시설	중요인물	군·경 관련시설	다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민간·시설 (기타)	합계
1,017	805	799	6,402	900	342	4,298	14,563

※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http://www.tiic.go.kr>).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6,8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동지역이 5,383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아프리카지역은 1,132건, 유럽지역은 955건, 미주지역은 288건의 순으로 테러발생이 많았다. 테러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가 속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테러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10> 지역별 테러발생 현황

(단위: 건)

아태지역	중동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아프리카	합계
6,811	5,383	955	288	1,132	14,569

※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http://www.tiic.go.kr>).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의 연도별 테러사건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테러발생건수가 3,000건을 넘어선 이후 2010년을 제외 하고는 모두 3,000건 이상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해의 절반정도만이 지나갔지만 2,300건 가량의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테러발생건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연도별 테러사건 추이

(단위: 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	합계
건수	3,427	3,215	3,370	2,946	3,347	2,296	18,601

2012년의 월별 테러사건 통계를 살펴보면 모든 월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테러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12년에 발생하는 테러사건의 수는 지금까지 중 제일 많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유형별 테러사건

(단위: 건)

납치	방화	암살	무장공격	폭파	기타	합계
860	105	325	7,620	9,493	267	18,601

※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http://www.tiic.go.kr>).

2077년부터 현재까지의 테러대상을 살펴보면 군·경 관련시설이 8,70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민간·시설이 5,096건으로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시설도 1,205건과 949건으로 많이 발생했다.

<표 13> 테러대상별 테러사건

(단위: 건)

외국인·시설	국가중요시설	중요인물	군·경 관련시설	다중 이용시설	교통수단	민간·시설 (기타)	합계
1,200	949	1,050	8,700	1,205	438	5,096	18,601

※ 출처: 테러정보통합센터(<http://www.tiic.go.kr>).

과거의 테러는 군·경 관련 시설과 같이 상징적인 대상을 많이 목표로 잡았지만 최근의 테러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목적이 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민간시설,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연성 목표물을 공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공공시설은 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 국가중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와 같은 연성 목표물에 대한 테러의 빈도가 늘었다는 것은 공공시설이 테러에 노출될 위험 도한 늘었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공공시설을 목표로 한 테러의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국내 테러 대응현황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테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법기관과 함께 군(軍)기관에서 테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기관별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며 국내·외 유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영역은 정보수집·처리·배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으로는 테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테러관련 위기평가 경보발령,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 통합관리 24시간 상황 처리체제의 유지, 테러대책위원회·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비국 내 위기관리센터의 대테러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업무는 테러정보수집과 아울러 테러에 대한 진압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 및 기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여 위협적인 테러 행위에 대한 진압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경찰특공대에서는 폭탄테러 및 생화학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0년 군 특수부대 출신자와 폭발물처리 및 탐지견 자격증 소지자 등 29명을 특별채용 하였으며, ‘폭발물탐지견’, ‘특수장갑차’ 등을 구매하는 등 테러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테러와 관련하여 국내 관련 기관으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테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표 14> 국내 테러대응 기관과 업무내용

유관기관	담당부서	업무내용
외교통상부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부서	-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등
법무부	대검찰청	- 테러혐의자의 장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등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동 등
행정안전부	경찰청	-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등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등
관세청		-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등
환경부		-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등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테러 발생 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등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해외여행 질병 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관련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테러예방기관인 테러정보통합센터는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으로서 테러리즘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테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경찰과 군(軍)기관을 통한 테러대응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테러종합정보센터는 테러에 대한 정보를 집중하여 각 기관별로 분배하고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화학적 테러 및 방사능테러, 생물테러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테러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 등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테러에 대한 대응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수도원·공항·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대규모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테러대응체계가 테러위협에 비해 인력 및 장비의 부족하다. 이러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현재 청원경찰 등을 이용하여 외부침입을 예방하고 있으나, 상수원의 경우 그 규모가 상당히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테러대응에 대해서 전문성과 대규모시설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IV. 다문화사회에 따른 경찰 활동

1. 다문화사회 치안정책 대상의 명확화와 적극적 치안활동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정책들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할 경우 다문화가정의 대상을 국적위주로 한정하지 않는 지금의 정책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인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주민은 2년 후에는 한국 국민이 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한국국민인 중국계 국민들도 “외국인”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연히 다문화 관련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및 정책적 수요와 욕구가 다르므로 대상별 차별화된 치안정책이 필요하다. 즉,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안정된 치안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책,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등은 집단별 수요에 맞춘 치안확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김순석, 2010: 120).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치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은 외국인을 어려워하지 말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수상한 모습을 한 외국인을 발견했다면 서슴지 않고 다가가서 검문·검색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치안교육을 통하여 범죄예방의 중요성과 경찰관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줘서 언제든지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外事경찰활동의 내실화와 다문화 전담부서의 신설 및 강화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같이 신속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외국인범죄를 관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外事경찰이 조직되어 있다. 경찰청에外事국(외사기획과, 외사정보과, 외사수사과)이 있으며, 지방경찰청 단위에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경남지방경찰청에만 외사과를 두고, 그 외의 지방경찰청에는 외사전담과가 없는 대신 정보보안과 내 외사계를 두어 국내체류자의 신원파악 및 외국인범죄를 관장하고 있다(김명대, 2010: 168).

증가하는 외국인체류자 수에 맞춰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원 확충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수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外事경찰관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이 질적인 측면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민족 배려차원에서 한인 2세 동포(중국, 러시아)나 귀화인(동남아, 아프리카 등)을 경찰관으로 일정 비율 특별 채용하여 동일민족 외국인밀집지역에 배치하게 되면, 이들은 양국(모국+한국)의 문화, 풍속, 관습, 제도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에 대한 첩보·정보수집에 용이하여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 피의자들의 진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어 외교적 마찰이나 인권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김순석, 2010: 122).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따른 지금의 경찰조직체계는 다문화사회로 촉진하고 있는 치안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직 서울·부산·경기·인천·경남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방경찰에는 외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안과 내 외사계로 되어 있는 지방경찰청의 외사조직을 단계적으로 치안수요에 맞추어 외사과로 승격해야 할 것이다(윤영환, 2009; 김태복·신상민, 2011: 264).

3.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의 내국인과는 달리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시기를 놓쳐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과 의심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도 이혼 후 자식을 빼앗기거나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것을 염려하여, 참고 살아 가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수정 외, 2008; 김명대, 2010: 169).

외국인 범죄피해지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언어소통으로 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참고인은 우리나라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경찰관 또한 해당 외국어에 능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수사진행에 꼭 필요한 것이 통역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는 크게 3종류인데 경찰청이 민간 통역인들과 연계해 운영 중인 서비스와 문화관광부와 연결된 BBB 서비스, 한국관광공사와 양해각서를 맺고 시행중인 1330 티티콜 센터이다. 문제는 3종류나 되는 외국인 통역서비스가 있지만 현장에서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20년 전인 1992년 9월 개방화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개 국어 요원 36명을 배치, 통역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관광객 등 수요까지 확대해 현재는 민간요원 3000명을 포함해 전국 경찰에 3600여명의 통역담당자를 두고 필요에 따라 각 경찰서 등에 파견하고 있다. 경찰 운영 통역서비스의 600여명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이지만 나머지는 민간 통역인이다. 민간 통역인 제도는 각 지방경찰청 내규에 따라 자체 고용해 통역 건당 임금을 주는 체제로 운영된다. 강제성이 없어 새벽에 통역이 필요해도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민간 통역인은 의뢰를 수락하고 통역을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새벽시간에는 의뢰가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다.⁵⁾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역제도를 확실히 확립하여 민간통역사 위주보다는 경찰관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4. 외사직무에 적합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경찰교육기관 내 외사직무 관련 전문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현황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여러 국가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수사를 위한 의사소통(언어)을 위한 교육이 특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사경찰이라는 직무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범죄나 범죄피해 혹은 생활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가장 가까운 파출소 경찰관이 담당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벡 등 출신 외국인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에게 피해

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3012530044047&outlink=1>(2012.8.11. 검색).

사실을 알리거나 구제받기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김명대, 2010: 172).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교육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인 언어가 사용 가능하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서 과중한 외사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V. 결 론

2000년 이후 우리나라사회에서는 외국인 국내 체류자가 증가하고, 매년 10쌍 중 1쌍이상이 국제결혼을 함으로서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2012년 기준 1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이탈 주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사회는 이제 완벽하게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일민족에 중시하는 민족성에 따른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출신 다문화 구성원과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오원춘 사건⁶⁾과 같이 다문화 구성원들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다문화 구성원과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문화적 충돌은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로 인하여 갈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게 되어 프랑스의 방리유 사태처럼 자생적 테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생적 테러리즘은 뉴테러리즘의 한 유형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생활한 자에 의한 테러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인 차별과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구성원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 뿐 만 아니라 노르웨이의 브레이크비⁷⁾과 같이 외국인 혐오증에 가지고 있는 내국인 중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테러를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경찰·국토해양부·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기관에서 테러예방 및 테러정보의 취합 및 배포, 테러진압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적 테러·방사능 테러·생물테러 등과 같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형태의 테러에 대하여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 등과 같은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활동은

6) 2012년 4월 1일 수원에서 중국인 오원춘이 국내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7)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청사에 폭발물을 터트리고, 인근 우토야 섬에서 총기를 난사해 총 77명을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범인인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크빅은 자신의 행위가 '다문화주의'에 맞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여 외국인 혐오증에 의해 일어난 대표적인 자생적 테러라고 볼 수 있다.

가능하지만,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상수도원·공항·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대규모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테러대응 체제의 경우 위험성에 비해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자생적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방안으로서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치안정책 대상의 명확화와 적극적 형태의 치안활동 실시, 외사경찰활동 내실화와 다문화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다부서의 신설 및 강화, 외국인 혐오증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구축, 외사직무에 적합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경찰활동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쇄적인 민족성으로 인하여, 다문화사회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오원춘 사건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인 혐오증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 다문화사회 구성원 및 외국인 혐오증을 가진 국민들에 의한 자생적 테러리즘의 발생가능성이 점점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테러예방기관인 테러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테러예방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생적 테러리즘에 대해서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예방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권혜림. 2010. 다문화사회의 치안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2(1): 5-33.
- 김명대. 2010. 다문화사회의 경찰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석. 2010. 다문화사회의 범죄요인과 경찰의 대응전략. 경찰학논총. 5(1): 101-127.
- 김순석. 2010. 다문화주의에 따른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3(1): 1-19.
- 김태복, 신상민. 2010.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범죄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7(4): 247-270.
- 김현진. 2004. 테러리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민수홍 외 역. 2005. 범죄학이론. 나남출판.
- 류원호. 2010. 테러리즘에 대한 입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 CM 미디어.
- 신의기. 2002. 테러리즘 관련법제 정비방안.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신체철. 2009. 한국의 대테러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현규, 이은상, 김종진.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행에 대한 보호관찰 대응방안 연구. 10(1):

127-175.

유인일. 2011. 뉴테러리즘 대응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기봉. 2008. 뉴테러리즘의 등장과 이에 대응한 국가 네트워크 전략.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주재진. 2004. 뉴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4: 121-144.

최선우. 2010. 다문화사회의 범죄문제와 경찰의 대응. 한국경찰학회보, 12(3): 35-60.

경찰청 테러예방교실 <http://cta.police.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테러정보통합센터 <http://www.tiic.go.kr/>

통계청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3012530044047&outlink=1>(2012.8.11. 검색).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18&bbs=INDX_001e-나라지표(2012.8.11. 검색).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1205021132221&pt=nv>(2012. 9. 12 검색).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732943&cloc=olink|article|default (2013. 2.17 검색).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111021142325480977>(2013. 2. 17 검색).

申載憲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2013)를 취득하고 현재 영남이공대학 강사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는 “침입절도에 대한 CPTED 전략 적용방안(2010)”, “경찰의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0)”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경찰학, 범죄학, 경호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enfant21@naver.com).

金相雲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경찰직무전문교육이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2012)를 취득하고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 이다. 주요 연구로는 “도박문제에 대한 치료·감독기관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2010)”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경찰학, 경호학, 민간경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ksw48@naver.com).

투 고 일: 2012년 11월 21일

수 정 일: 2013년 0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3년 02월 25일

Policing to Prevent Home-grown Terrorism in a Multi-cultural Society

Jae Hun Shin, Sang Woon Kim

Korea has been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2000. This change has enhanced the country by providing vivid examples of excellence, but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relation to crime occurrence in recent years. The reality is that due to a lack of government control and particularly due to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as a result of the sudden increase in foreign population, the risk of domestic terrorism has been on the rise. Of the various forms of terrorism, the type Korea is most at risk for is home-grown terrorism. Home-grown terrorism is a new type of terrorism. It is different from regular terrorism in the sense that this type of attack can cause more damage and it may be more difficult to find and disband this type of organization. Similarly, there may be a lack of time to respond to home-grown terrorism and fear may spread due to the mass media.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it is hard to say that the Korean Police Force has prepared an effective response. There is a lack of basic statistical information about foreigners in Korea and a lack of specialists in the field of home-grown terrorism. Therefore, this thesis looks into what an appropriate response to home-grown terrorism might be.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terrorism, home-grown terrorism, foreign affairs policing